

거진중 학생 20명 대상 진로캠프 운영

고성교육지원청·청소년수련관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업무협약... 교육·문화·복지·의료 총체적 지원

거진중학교 학생들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고성교육지원청과 고성청소년수련관의 지원으로 개인의 진로 선택과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체험하는 진로캠프에 참가한다.

고성교육지원청과 고성청소년수련관은 교육·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저소득층 밀집지역 초·중학생의 교육·문화·복지·의료 등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2일 오후 3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고성청소년수련관은 9월 24일 오전 10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2월 28일까지 거진중학교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Dream high(진로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모두 8회에 걸쳐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적성과 능력에 관한 자기 이해를 기반으로 직업의 성질과 다양한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와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 꿈을 향한 도전에 나설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줄 계획이다.

회기별 주요 프로그램 일정은 다음과 같다. △1~2회기(9월24일) 오리엔테이션, 진로적성검사, 나만의 직업군 분류하기, 진로적성검사 해석,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진로체험 △3회기(10월8일) 인생그래프 그리기, 문화예술탐방 △4회기(10월22일) 직업퀴즈 게임, 환경 에너지 관련 직업탐방 △5회기(11월12일) 이색



고성교육지원청과 고성청소년수련관은 지난 22일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직업 알아보기, 건강 안전 관련 직업 탐방 △6회기(11월26일) 정치 행정 업무 관련 직업 알아보

기, 나만의 직업부수 만들기 △7회기(12월10일) 변화된 나 알아보기 △8회기(12월27~28일)

꿈을 향한 희망, 꿈을 향한 도전, 명동안의 다양한 직업군 모니터링. 최광호 기자

창작인형극 '홍라공주' 공연

고성군이 공연을 관람하기 힘든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난 22일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의 일환으로 창작인형극인 '홍라공주' 공연을 열었다.

이번 공연은 춘천무지개인형극단의 창작인형극으로 오전 10시부터 고성군 문화복지센터에서 지역 초등학교 학생 및 유치원생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손인형극과 그림자인형극으로 2회에 걸쳐 공연됐다.

고성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으로 도시와 농촌간 문화차이를 극



복하고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통한 문화체험의 시간을 제공해 발해역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문화적 정서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승근 기자



2011 강원학생 역전 마라톤대회 시상식

2011 강원학생 역전 마라톤대회가 지난 21일 고성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가운데, 강릉교육지원청과 평창교육지원청이 1부와 2부에서 각각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초등부 27명과 중등부 40명 등 67명의 도내 꿈나무 육상선수들이 출전해 고성시내 일대 9개 구간 28.7km의 시군대항 구간별 대회로 치러졌다. 사진은 1부 시상식 장면. 박승근 기자

조연에서 주연으로...

파인리즈배 제2회 국제캐디골프대회, 정소연 캐디 우승

골프 고객이나 선수들의 골프 용품을 운반하고 스윙 자세와 방향을 조언하는 등 조연 역할에 머물렀던 '캐디' 들이 주연으로 출전한 이색 골프 대회가 열려 화제다.

지난 20일 고성군 토성면 소재 파인리즈리조트(회장 김재봉)에서

는 전국 34개 골프장의 캐디 130명을 비롯해 중국과 태국 등 모두 200여명의 캐디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2회 파인리즈배 국제 캐디 골프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샷건 방식으로 시합부와 친선부 2개 부분으로 나눠 동시에 진행됐다. 총상금 450만원 중 우승자에게는 200만원의 상금과 은 100돈의 트로피가 시상품으로 지급됐다.

시합부(스트로크)에서는 정소연이 최종스코어 81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준우승은 조형진(파인크리크CC), 3위는 신슬기(제1회 대회 우승자, 파인리즈CC)가 차지했다.



제2회 국제 캐디 골프대회에서 우승한 정소연이 우승컵을 들고 보이고 있다. 우측은 이번 대회를 주최한 파인리즈리조트 김재봉 회장.

친선부(신페리오)에서는 이혜진(남여주CC)이 72타로 우승했다. 준우승은 고희수(남여주CC), 3위는 김효선(파인리즈CC)이 차지했다.

이번 대회를 개최한 파인리즈리조트 김재봉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최근 한국 골프장의 캐디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캐디의 불확실한 미래'와 '비전문성'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며 "파인리즈CC는 '캐디의 프로화'를 통해 활로를 개척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국내 및 아시아 캐디들이 프로직업인으로서 자긍심과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대회를 마련했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